

# 2022년 국내 주요 산업 전망

반도체 | 디스플레이 | 휴대폰 | 자동차 | 철강 | 조선·해운  
에너지·유틸리티 | 정유·화학 | 제약·바이오 | 건설 | 항공 | 관광  
게임 | 미디어·엔터테인먼트 | 유통 | 식음료 | 외식 | 패션  
화장품 | 은행 | 증권 | 카드 | 생명보험 | 손해보험

December 2021

삼성KPMG 경제연구원

2024

2023

2022

2021

2019

# Contacts

## 삼성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이사

T: +82 2 2112 6744

E: hyojunglee@kr.kpmg.com

김규림

이사

T: +82 2 2112 4089

E: gyulimkim@kr.kpmg.com

임두빈

수석연구원

T: +82 2 2112 7469

E: doobeenyim@kr.kpmg.com

박도휘

수석연구원

T: +82 2 2112 0904

E: dohwipark@kr.kpmg.com

김수경

수석연구원

T: +82 2 2112 3973

E: sookyungkim@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 Contents

	Page
I. 2022년 산업 기상도 Snapshot	3
II. 2022년 산업별 전망	5
III. 시사점 및 기업 대응 전략	30

# Chapter. I

2022년 산업 기상도 Snapshot



# 2022년 산업 전망 기상도

2022년 대내외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소비심리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나 글로벌 공급망, 원자재 가격 등의 불안정성에 따른 산업별 경영 환경에 대한 영향이 유효할 전망이다. 아울러 전 세계적 탄소중립 및 디지털 관련 정책 강화가 산업 방향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산업	2022년 전망
반도체	긍정적
디스플레이	일부 부정적
휴대폰	일부 긍정적
자동차	일부 긍정적
철강	일부 긍정적
조선·해운	일부 부정적
에너지·유틸리티	긍정적
정유·화학	일부 긍정적
산업	2022년 전망
제약·바이오	일부 긍정적
건설	일부 긍정적
항공	일부 긍정적
관광	일부 긍정적
게임	긍정적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긍정적
유통	일부 긍정적
식음료	일부 긍정적
산업	2022년 전망
외식	일부 긍정적
패션	일부 긍정적
화장품	일부 긍정적
은행	일부 긍정적
증권	일부 부정적
카드	일부 부정적
생명보험	일부 긍정적
손해보험	일부 부정적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Chapter. II

2022년 산업별 전망



# ☀ 반도체 《반도체 부족 사태 점진적으로 해소 전망》

2022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8.8% 성장한 6,015억 달러로 전망되며, 2021년 수준의 두 자릿수 성장률은 기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대로 시스템 반도체 품귀 현상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각국의 반도체 자급력 제고를 위한 행보가 2022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

## 2022년 반도체산업 전망

지역	시장 규모(백만 달러)			전년대비 성장률(%)		
	'20년	'21년	'22년	'20년	'21년	'22년
미주	95,366	118,835	131,084	21.3	24.6	10.3
유럽	37,520	47,126	50,467	-5.8	25.6	7.1
일본	36,471	43,581	47,621	1.3	19.5	9.3
아시아·태평양	271,032	343,419	372,317	5.1	26.7	8.4
전체	440,389	552,961	601,490	6.8	25.6	8.8

제품	시장 규모(백만 달러)			전년대비 성장률(%)		
	'20년	'21년	'22년	'20년	'21년	'22년
개별 반도체	23,804	30,100	32,280	-0.3	26.4	7.2
광전자	40,397	43,229	45,990	-2.8	7.0	6.4
센서	14,962	18,791	20,913	10.7	25.6	11.3
IC	361,226	460,841	502,307	8.4	27.6	9.0
- 아날로그	55,658	72,842	79,249	3.2	30.9	8.8
- 마이크로	69,678	79,102	83,980	4.9	13.5	6.2
- 로직	118,408	150,736	167,396	11.1	27.3	11.1
- 메모리	117,482	158,161	171,682	10.4	34.6	8.5
전체	440,389	552,961	601,490	6.8	25.6	8.8

Source: WSTS('21.11),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각 지역에서 판매되는 반도체 매출 기준

**01 2022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8.8% 성장 전망**

- 2022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6,015억 달러로 예상되며, 성장률은 2021년(25.6%)보다 낮은 8.8%로 예상. 반도체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2021년만큼의 가격(P)과 판매량(Q) 상승은 어려울 전망
- 시스템 반도체 부족 이슈는 2022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각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설계 행보가 2022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02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폭 확대로 성장률 하향 안정화**

- 일부 기업의 공격적 증설과 신규 팹 가동으로 DRAM과 NAND의 공급 과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2021년 메모리 반도체는 34.6% 성장해 호황을 맞았으나, 2022년에는 반도체 공급 증가 및 가격 하락으로 성장률이 8.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03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품귀 현상 일부 해소 전망**

- 반도체 수요 기업의 안전 재고 확충 움직임으로 반도체 수급은 타이트한 상황이지만, 2022년에는 반도체 부족 이슈가 일부 해소될 전망
-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파운드리 기업의 평가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 수요 둔화로 하락 사이클 재진입 전망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IT 기기 수요 증가로 LCD·OLED 시장이 모두 성장했지만, 2022년 코로나와의 공존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판매로 인한 기저효과로 디스플레이 시장은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 전망. 스마트폰용 OLED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OLED 시장 성장이 LCD 시장의 낙폭을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2022년 디스플레이산업 전망

###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공급자 우위에서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재전환

- 코로나19로 인한 IT 기기의 수요 증가로 디스플레이산업은 2021년 성장. 2022년 코로나와의 공존 시대로 접어들면서, 디스플레이산업은 다운사이클로 재진입할 것으로 예상. LCD와 OLED의 전망이 엇갈릴 것으로 예측
- LCD: 중국 기업의 공격적인 LCD 공급 확대로 LCD 패널 가격 방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OLED: 세트 업체의 OLED 라인업 확대와 프리미엄 제품의 수요 증가로 OLED 시장은 양호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

연도	LCD(좌)	AMOLED(좌)	AMOLED 비중(우) (%)
'21년	~1,100	~400	~27%
'22년	~1,100	~400	~27%
'23년	~1,100	~400	~27%

Source: OMDIA,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디스플레이 제품군별 전망

세트 수요 둔화 → 패널 가격 하락 예상

- 코로나19로 TV와 IT 기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LCD 패널 가격이 상승.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는 LCD 패널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
- 2022년 LCD 패널을 중심으로 패널 가격 하락이 예상
-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제품에 OLED 탑재가 확대되고, OLED 칩투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제품군	전망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폰 제품군 내 OLED 칩투율이 하이엔드 제품에서 중저가 제품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li> <li>스마트폰용 OLED 수요는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li> </ul>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체 주기가 긴 TV 제품의 기저효과와 코로나 공존 시대로의 전환으로 인해 TV 수요는 약세 전망</li> </ul>
노트북·태블릿·모니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1년 노트북·태블릿·모니터 수요가 정점을 찍고 2022년에는 감소 예상</li> </ul>

### 2022년 주목할 디스플레이 기술

#### 플렉시블(폴더블·롤러블) 디스플레이

- 시장조사업체 DSCC에 따르면, 2022년 폴더블·롤러블 패널 활용 기기의 출하량은 1,670만 대로, 2021년 대비 약 2배 증가 예상. 스마트폰에 활용되는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출하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삼성전자의 Z폴드3과 플립3에 이어 2022년 출시될 폴더블 라인업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성장을 견인

#### 마이크로(Micro) LED

- 50 $\mu$ m 이하의 초소형 LED 소자를 이어 붙여 만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LED를 RGB 발광체로 사용
- 마이크로 LED는 얇은 베젤 구현이 가능하며, 사이즈 제한이 없으며, 폴더블·롤러블 등 다양한 제품 구현이 가능. 하지만 대중화를 위해서는 수율 개선 및 비용 절감이 필요

#### 퀀텀닷(Quantum Dot, 양자점) 디스플레이

- QD는 전기·광학적 성질을 띤 나노미터 크기의 초미세 반도체 입자를 말하며, 빛에너지를 받으면 스스로 색을 냄
- QD를 적용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는 QLED, QD OLED, QNED 등으로 발전 중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 휴대폰 《 신흥국 중심으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확대

2022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1년 대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프리미엄 시장에서 폴더블폰이 점유하는 비중이 확대될 전망. 스마트폰용 반도체 공급 이슈가 점진적으로 해소되면서 신흥국 중심의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가 확대될 전망

## 2022년 휴대폰산업 전망

### 수요 소비자 스마트폰 교체 자극 요인 미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

- 신규 출시 스마트폰 사양(카메라, 5G, 폴더블)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교체 수요를 자극할 만큼의 변화는 미미. 스마트폰 교체 주기도 늘어남
- 시장조사업체 IDC는 2021년과 2022년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을 하향 조정. 2021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대비 5.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에는 2021년보다 3.0% 성장 예상

Source\*: IDC  
Note: 출하량 기준. 조정 전('21년 8월), 조정 후('21년 12월)

### 공급 반도체 공급 정상화 예상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

- 2021년 AP, CIS(이미지센서) 등 스마트폰용 반도체 공급 이슈로 스마트폰 생산량 감소
- 판매가 높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생산 물량을 몰아주는 대신 중저가 스마트폰의 생산량을 줄임
- 2022년에는 스마트폰용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되어 중저가 스마트폰의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Source: Counterpoint Research

2022년  
휴대폰산업  
전망

### 가격 신흥국 중심의 중저가 휴대폰 시장 확대

[글로벌 스마트폰 ASP]

- 2021년 선진국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나 평균 판매 가격(ASP, Average Selling Price)은 2020년 343달러에서 382달러로 상승
- 2022년 이후부터는 인도,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중저가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스마트폰 평균 판매 가격은 2022년 369달러, 2023년 352달러로 하락할 전망

Source\*: IDC  
Note: 글로벌 기준

### 제품 폴더블폰 침투율 확대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

-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48.1% 성장할 것으로 전망(IDC)
-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라인을 갤럭시S와 폴더블 투트랙으로 운영하며, 폴더블폰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 화웨이, 오포 등 중국 기업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적으로 시장 내 영향은 미미할 것

Source\*\*: IDC

Source\*: IDC, Global Smartphone Shipments Expected to Grow 5.3% in 2021, Despite Supply Chain Constraints, According to IDC, IDC #prUS48453121, Dec 2,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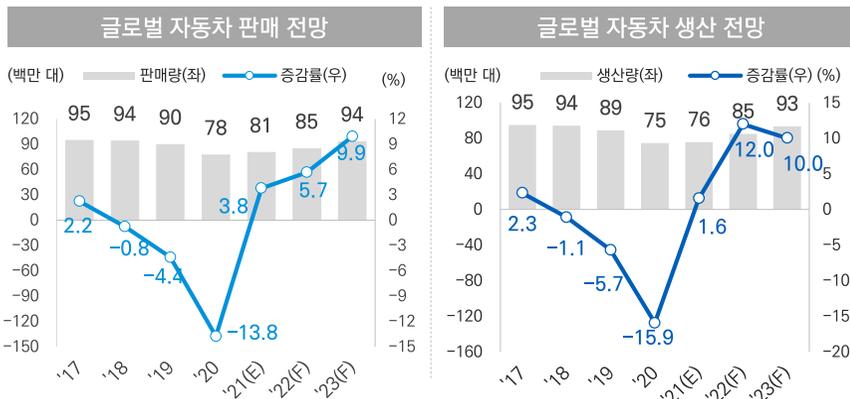
Source\*\*: IDC, Worldwide Foldable Phone Forecast, 2021-2025, Doc # US48005621, July 2021

## II. 2022년 산업별 전망

# ☁️ 자동차》반도체 공급난 완화와 제한적 성장

2021년 자동차 판매는 연중 불안정한 반도체 수급이 생산 차질로 이어지며 다소 부진한 회복세를 보임. 2022년은 코로나19 변이 확산과 금리 인상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견조한 대기 수요 및 생산의 단계적 정상화로 제한적인 성장이 전망됨

### 2022년 자동차 수요·공급 전망



- **글로벌 자동차 판매는 2022년 5.7% 증가한 8,529만 대 전망**
  - 코로나19 안정화 및 공급 정상화 과정에서 대기 수요가 유입되며 신차 판매 증가로 이어질 전망. 특히 전기차 중심의 신차 출시 효과가 더해지면서 수요 개선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
- **글로벌 자동차 생산은 2022년 12.0% 증가한 8,486만 대 전망**
  - 2022년 글로벌 OEM 기업의 생산 순증량은 폭스바겐 그룹(154만 대), 르노닛산(99만 대), 현대자동차그룹(74만 대), 포드(70만 대) 순으로 예상

Source: LMC(2021년 12월 조희 기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2022년 자동차산업 주요 이슈

- 01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일부 완화**
  - 2021년 연중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차량용 반도체는 공급업체의 가동률 회복으로 수급 상황이 점차 개선 중
  - 반도체 대란 이후 새롭게 착공이 결정된 팹(Fab)은 가동까지 통상 2년이 소요되기에 2022년 연내 가동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전동화 및 전장화의 가속화로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전망
- 02 전기차, 가속 성장 구간으로 진입**
  - 2022년 글로벌 배터리 전기차(BEV) 시장은 전년 대비 37.5% 증가한 594만 대를 기록할 전망(Marklines)
  -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 모델 출시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루시드, 리바인, 샤오펑 등 신생 전기차 업체들의 신차 출시가 이어질 전망.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의 독주에서 다자 경쟁구도로 전환 중
- 03 국내 자동차 시장, 판매 감소 전망**
  - 2022년 국내 시장의 자동차 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신차 출시 효과의 소멸로 전년 대비 0.8% 감소한 173만 대를 기록할 전망(LMC)
  - 2021년 생산 차질로 이연된 수요가 2022년 반영된다는 점은 판매에 긍정적이나, 2~3회의 추가 금리 인상으로 자동차 할부 금융 여건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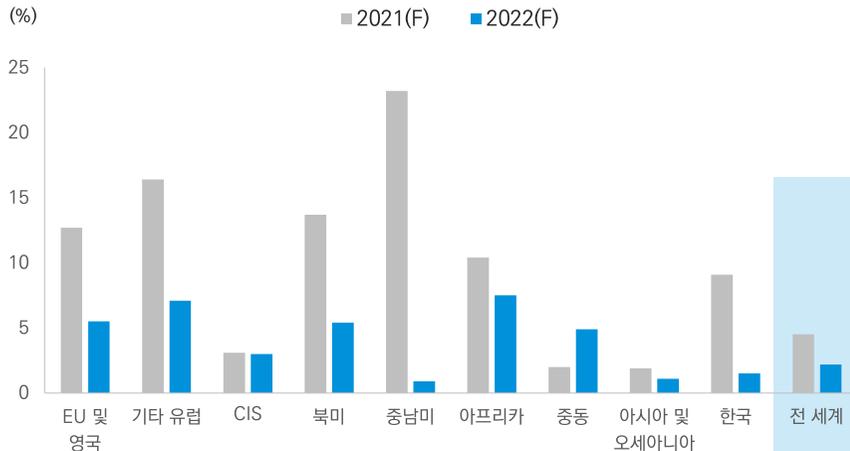
## II. 2022년 산업별 전망



# 철강 《안정적인 수급 상황 예상되나 기저효과로 성장세는 주춤》

2022년 글로벌 철강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기저효과로 인해 수요의 증가율은 2.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됨. 원재료 가격은 2021년 급등 후 2022년부터 차츰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환경 규제로 인한 철강 감산 정책이 유지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수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철강 수요 전망



- 2022년 글로벌 철강 수요는 18억 9,640만 톤으로 2021년 대비 2.2% 성장 전망
  - 선진국 중심의 철강 수요 회복이 예상되나 성장률은 2021년 대비 다소 둔화
-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중국의 성장 둔화는 철강 수요 회복의 제약 요인
  - 헝가리 파산 사태로 중국 내 부동산 및 건설 프로젝트 중단 시 철강 수요 위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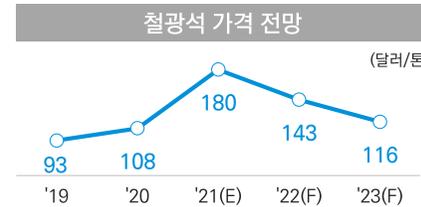
Source: 세계철강협회,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전년 대비 증감률이며 세계철강협회가 2021년 10월 발표한 단기 전망을 사용

Note 2: CIS\*는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형성된 독립국가연합

### 원재료 가격 전망 및 2022년 국내 철강산업 주요 이슈

원재료 가격: 철광석 및 원료탄은 '21년 급등 후 '22년부터 하락세 예상



Source: 한국광물자원공사,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Source: 한국광물자원공사,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국내 전방산업 수요는 양호

- 2021년 건설투자 증가로 철강재 수요도 증가
- 조선 건조 역시 2021년 수준 유지 예상
- 자동차 생산은 반도체 부족 완화를 위한 공급망 개선으로 증가할 것

#### 기업 실적도 증가 예상, 증가율은 둔화

- 수급 안정(전방산업의 수요는 견고하게 유지,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은 제한)에 따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유지되며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저효과로 인해 매출 증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철강 감산 → 단기적 역내 경쟁 완화

- 중국은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위해 철강 감산 정책 유지
  - 중국은 철강 수출 억제와 내수 우선 공급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역내 시장 경쟁 완화 기대

####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 상승

- 전 세계 주요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환경 규제 강화는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과 환경 비용 상승에 따른 철강산업 내 이익 감소 초래 가능

2022년  
국내 철강산업  
전망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조선·해운 》 조선산업, 해운산업 소강상태로 전환될 우려 존재

2021년 조선산업은 컨테이너선의 발주 증가로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미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2022년 추가 발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2022년 해운산업은 물류 혼란의 수습, 중국 조강 생산량 제한,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요인으로 주요 화물 물동량은 전반적인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

## 2022년 조선산업 전망

2022년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 및 한국 수주잔량 전망			
구분	2020	2021(E)	2022(F)
글로벌 발주량 (백만 CGT)	23.2 (↓23.5%)	41.3 (↑78.0%)	35.0 (↓15.3%)
한국 수주량 (백만 CGT)	8.7 (↓12.8%)	17.0 (↑95.4%)	13.0 (↓23.5%)
글로벌 발주액 (억 달러)	496.0 (↓37.8%)	965.0 (↑94.6%)	860.0 (↓10.9%)
한국 수주액 (억 달러)	195.0 (↓14.8%)	420.0 (↑115.4%)	340.0 (↓19.0%)

Source: Clarksons, 한국수출입은행

- 2021년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은 컨테이너선의 급격한 수요 확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음  
- 글로벌 총 발주량 중 컨테이너선은 52%를 차지 (2021년 상반기 기준)
- 2022년 컨테이너선 발주는 2021년에 집중 발주된 데 따른 영향으로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며 감소할 것으로 예상. 2022년 글로벌 발주량 역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
- 이에 따라 한국의 신조선 수주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수주량은 전년대비 23.5% 감소한 1,300만 CGT, 수주액은 19.0% 감소한 340억 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

## 2022년 해운산업 전망

컨테이너	전망
 <p>2021년 수요 증가와 물류 정체에 의한 선박량 부족 효과로 운임이 급격히 상승했으나, 최근 물류 혼란이 수습되고 있고 선박 공급 부족도 해소되면서 2022년 운임은 2021년 대비 평균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p>	
벌크선	전망
 <p>2022년 벌크선은 전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른 석탄과 철광석 사용 감소와 중국의 조강 생산량 제한 조치로 인해 탱커, 컨테이너, LNG선 대비 수요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p>	
탱커	전망
 <p>2022년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원유 수요 축소가 우려. 이에 따라 탱커 물동량 또한 2021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p>	
LNG선	전망
 <p>각국의 탄소배출 저감 등 환경개선 정책 강화로 LNG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2년에도 양호한 상황을 유지할 전망</p>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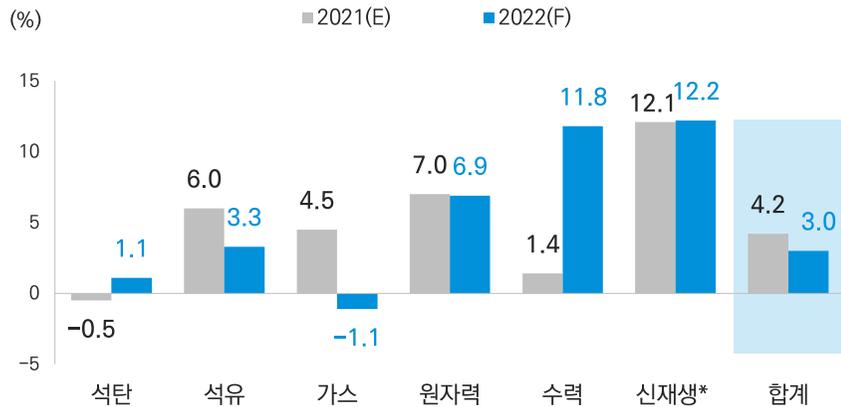
## II. 2022년 산업별 전망



# 에너지·유틸리티 《뚜렷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세

2022년 국내 에너지 수요는 코로나19가 완화된다는 가정하에 전년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경제회복 변동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수요 전망의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있음. 한편, COP26 글래스고 기후 합의로 인해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 추세는 뚜렷할 것

### 국내 1차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 2022년 국내 에너지 수요는 312.1백만 TOE으로 전년대비 3.0% 증가 전망
  -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국내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세가 뚜렷하게 유지되는 반면 석탄·가스 수요 감소
  - 태양광, 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수요는 2021년 대비 12.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Source: 에너지경제연구원,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전년대비 증감률

Note 2: 신재생에는 기타에너지도 포함

### 2022년 국내 에너지원별 주요 이슈

구분	2022년 전망
석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둔화와 더불어 노후 발전소 퇴출 등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용 수요 정체가 지속</li> <li>• '21년 11월 COP26에서 197개 당사국이 석탄발전의 단계적 중단에 합의하면서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압박이 커질 전망</li> </ul>
석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타격받던 글로벌 셰일 기업의 생산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22년 국제유가는 WTI 기준 \$93~\$75/bbl 수준으로 전망</li> <li>• EV 판매 확대 등 산업 전반의 전기화(Electrification) 확산 등으로 원유 수요증가 둔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li> </ul>
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 이란이 핵협정(JCPOA)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됨</li> <li>• 이에 따라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 2위 보유국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시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li> </ul>
원자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동유럽 국가 및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 대형 원전의 건설 가능성은 낮은 가운데 한국 원전의 수출 가능성 크지 않은 상황</li> </ul>
신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그린뉴딜 정책, COP26 합의 등으로 청정기술 개발 가속화</li> <li>• '22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예산 대폭 확대</li> </ul>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 보급 등에 따른 코로나19 회복 및 전 산업 전기화가 확산되면서 전력 소비 증가</li> <li>• '22년 전력 소비는 전년대비 2.2% 증가할 전망</li> </ul>

Source: 에너지경제연구원, 언론보도 종합



## 정유·화학 》 운송용 정유제품 회복과 NCC 수익성 부진

각국의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국가 간 이동 제한이 완화되어 운송용 정유제품 중심의 수요 회복세가 기대되며, 정제마진 회복으로 2022년 국내 정유산업 수익성은 증가할 전망. 한편 국내 화학산업의 경우, 전방산업 호조로 수요는 증가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수요구조 변화 등으로 제품별 수익성은 상이할 전망

### 2022년 국내 정유제품 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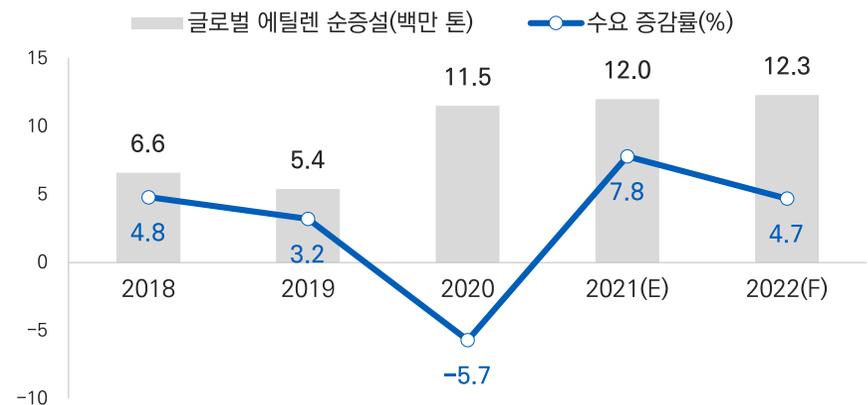
(백만 달러/bbl)

	2018	2019	2020	2021(E)	2022(F)
경유/디젤	29.0	28.4	26.3	28.1	29.8
휘발유	26.0	26.4	24.0	26.0	27.9
항공유	7.3	7.6	4.4	6.5	8.5
중유	7.1	7.2	6.9	7.0	7.1
기타	11.2	11.2	11.0	11.3	11.6

- 2022년 백신 접종 확대, 국가간 이동 제한 완화 등으로 전방산업의 호조에 따라 정유제품 수요 회복이 기대됨
  - 특히 육상·해상·항공 수송 부문 경기의 빠른 회복으로 운송용 정유제품 판매 증가
- 정제마진이 손익분기점을 상회하면서 국내 정유사의 수익성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Source: 유진투자증권,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2022년 국내 화학제품 수요 전망



- 2022년 화학제품의 수요 증가율은 4.7%로 전년(7.8%)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에 그칠 전망
  - 에틸렌을 중심으로 업스트림 증설이 지속되고 원료인 나프타의 가격 상승 지속으로 NCC 수익성은 부진할 전망
  - 반면 타이어코드, 폴리실리콘 등은 수급 밸런스가 개선되어 약진할 것으로 평가됨
- 기업별 주력 판매 제품에 따라 실적 격차가 확대될 것

Source: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 제약·바이오 《 업계의 정상화 및 신약 개발 기업 도약의 기회

축적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토대로 업계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공격적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됨. 더불어 후기 임상 파이프라인의 증가로 기술이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한편 CMO 시장의 경우, 단일 항체 및 유전자-세포치료제 시장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2022년 전망

1

축적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 행보 전망

- 국내 주요 CMO, 진단 기업의 2021년 3분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합산 규모는 각각 1조 7,650억 원, 1조 6,54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7%, 632% 증가
-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증자, 사채발행)가 반영된 결과이며, 기업은 신성장동력 및 R&D 역량 강화에 힘쓸 전망

국내 사업 유형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규모



Source: 대신증권,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2021년11월 기준 각 부문별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의 합산

2

후기 임상 파이프라인 증가하며 기술이전 기회가 확대되어 기술료 수익 유입 증가 예상

- 신약 관련 임상시험이 코로나19로 지연됨에 따라 2022년 국내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 임상 결과 관련 이벤트들이 다수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료 수익 유입 증가 및 신규 기술의 수출 기회 확대 예상
- 구체적으로 美 FDA 허가 관련 이벤트가 4건, 임상 3상 2건, 임상 2상 14건 등 후기 임상 결과 발표 예정

국내 기업 후기 임상 파이프라인 주요 이벤트

예상 시기	주요 이벤트
2021년 4분기	• FDA 조건부허가 신청 (폐암) • 2상 결과발표 (코로나19치료제)
2022년 1분기	• FDA 품목허가 (면역결핍증 등) • FDA 조건부허가 신청 (비소세포폐암)
2022년 2분기	• 3상 결과 발표 (코로나19 백신) • 2상 결과 발표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등)
2022년 하반기	• 2상 결과 발표 (두통, 방광암 등) • 중국 품목허가 신청 (중증근무력증)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3

CMO 시장의 다각화를 통해 단일 항체 의약품 및 유전자-세포치료제 시장의 지속적 성장 기대

- 코로나19 백신은 유전자-세포치료제 방식으로 개발되며, CMO 기업들은 기존에 영위하던 단일항체 의약품에 더해 유전자-세포치료제 양산까지 경험
- CMO 시장은 단일 항체 및 유전자-세포치료제 시장을 필두로 성장 예상. 단일 항체 시장은 연평균 9.3%로 성장하여 '30년 약 3,905억 달러 시장 형성 전망. 유전자-세포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31.3%로 성장하여 2026년 101억 달러 수준의 시장 형성 예상

단일 항체 시장



유전자-세포치료제 시장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건설 > SOC 예산 확대와 주택 분양 물량 증가로 당분간 성장세 유지

2022년 국내 건설수주액은 토목 수주의 증가와 주거용 건설 수주 증가로 2021년 대비 0.2% 증가한 214조 8,000억 원을 기록할 전망. 2022년 건설산업은 여전히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자재 가격 급등, 건설투자 부진 등의 위험요소는 존재하나 경제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확대, 도심 재개발 사업 활성화 등으로 당분간 성장세 유지

## 국내 건설수주액 현황 및 전망

(조 원)

구분	2019	2020	2021(E)	2022(F)	증감률 ('21 YoY)
공공	48.1	52.1	58.4	58.9	▲ 0.9%
민간	118.0	142.0	156.0	155.9	▼ -0.1%
토목	49.5	44.7	53.2	55.4	▲ 4.1%
건축	116.6	149.4	161.2	159.4	▼ -1.1%
주거	65.4	92.8	86.4	87.4	▲ 1.2%
비주거	51.1	56.6	74.8	72.0	▼ -3.7%

Source: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22년 국내 건설 수주 규모는 2021년 보다 0.2% 높아진 214조 8,000억 원을 기록할 전망
- 발주 부문별 토목공사가 증가한 영향으로 공공 수주가 0.9% 증가하는 반면, 민간 수주는 0.1% 감소할 전망
- 공종별 토목·주택 수주는 각각 4.1%, 1.2% 증가할 전망이며, 비주택 건축 수주는 3.7% 감소할 전망

## 2022년 국내 건설산업 주요 이슈



Source: 기획재정부

- 2022년 SOC 예산 28조 원 투자 계획(2021년 대비 5.7% 증가)
- 국가 균형발전, 미래혁신, 국민 안전강화, 교통서비스 확대 등에 중점 투자



Source: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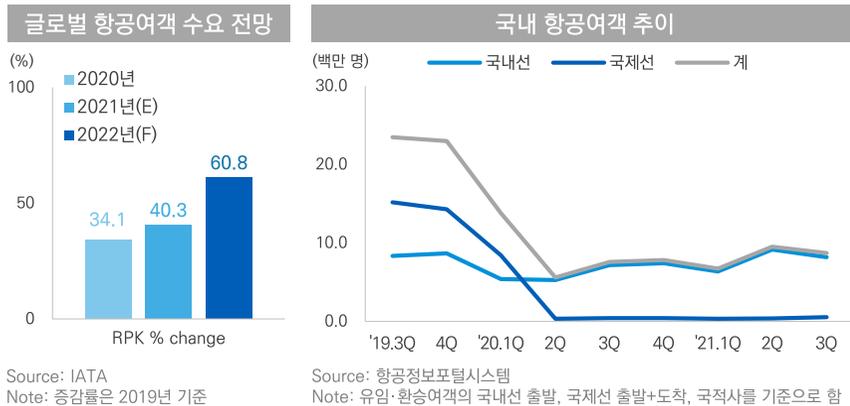
- 주거용 건물건설 기저효과가 완화되고, 양호한 주택 수요 및 수주 증가 예상
- 향후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에 힘입어 수주 증가세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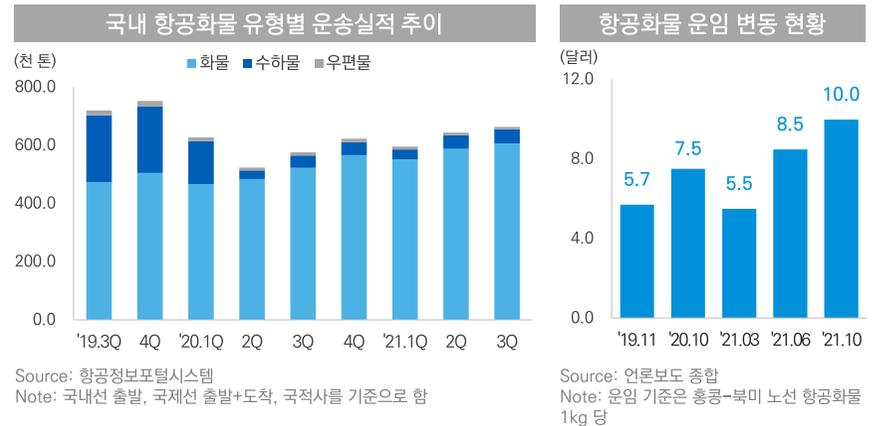
# 항공 》 화물·국내선 중심의 실적 회복, 국제선 여객은 불확실성 잔존

국내선 항공여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선은 여행제한·인종차별 등의 우려로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됨. 항공화물은 당분간 해운 물류 대란으로 인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해상 운임 정상화 및 고유가 기조가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이익 감소 우려도 존재

## 항공여객산업 현황 및 전망



## 항공화물산업 현황 및 전망



- IATA(국제항공운송협회)는 2021년 전 세계 항공여객 수요(RPK)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40.3% 수준으로 회복하고, 2022년에는 60.8%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
- 국내에서는 항공여객 중 국내선은 2020년 하반기부터 점차적인 수요 회복세가 지속되었으나 국제선은 여전히 부진한 경향을 보임
- 국민들이 해외여행의 대체지로 국내여행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입국 제한 완화에 따라 국제선 수요 재개도 전망되나 감염 우려 외 인종차별 문제가 더해져 비교적 더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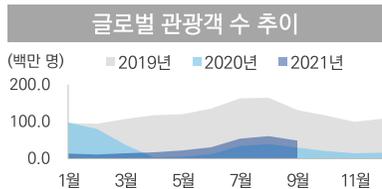
- 국제선 항공여객 수요가 감소하여 수하물 수요는 크게 줄었으나, 항공화물은 강세를 보이며 2021년 3분기 2019년 동기대비 27.9% 성장. 이에 따라 항공화물 운임비 또한 상승세를 보임
- 항공화물의 수요 증가와 운임비 상승은 방역물자 수송 확대 및 컨테이너선 공급 부족에 따른 반사이익 효과로 분석
- 항공화물 수요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운 병목 현상의 완화 및 해상 운임 정상화 조짐이 보이고 고유가 기조로 연료비 부담까지 가중됨에 따라 항공화물 호조세가 주춤할 경우 이익 감소 우려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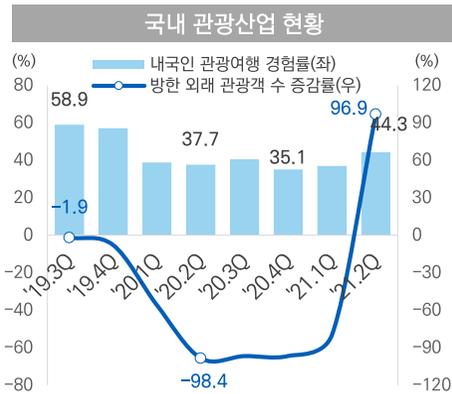
# 관광 《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나 지속되는 돌발변수로 더딘 속도

관광산업과 숙박산업은 트래블 버블 제도 도입 및 관광업계 지원 정책 등으로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규제 강화가 지속될 시, 관광산업과 숙박산업의 전반적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 국내외 관광산업 전망



Source: UNWTO



Source: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글로벌 관광객 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나, UNWTO(세계 관광 기구)는 해외여행 시장의 회복이 2023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국내에서는 트래블 버블 국가 확대 및 금융지원·관광지 조성 등 관광업계 지원 정책에 힘입어 방한 외래 관광객 수와 내국인 관광여행 경험률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
- 다만 남아공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관광객 입국 제한을 재개하는 등 변수가 지속되어 예상보다는 전반적 회복이 늦어질 우려가 존재

## 숙박산업 현황 및 전망

### 숙박시설 유형별 이용 총량

구분	2020.1H	2021.1H	증감률
가족·친지집	12,172	11,449	5.9% ↓
호텔	4,922	6,693	36.0% ↑
콘도미니엄·리조트	4,207	5,502	30.8% ↑

Sourc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호텔·리조트 관련 규제 변화

구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일상회복 잠시 멈춤, 거리두기 강화
숙박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실 운영 제한 및 정원 초과 금지 해제</li> <li>•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자제 권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 인원만 추가 제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숙박시설 이용 가능</li> </ul>
부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li> <li>• 행사·집회 등: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에는 500명 미만까지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적모임 전국 4명</li> <li>• 행사·집회 등: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에는 300명 미만까지 가능</li> </ul>

Sourc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21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가족·친지집보다 호텔, 콘도미니엄·리조트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확대되며 숙박산업이 회복세를 보임
-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 전시회 등 극도로 위축되었던 행사가 재개된 추세. 하지만 2021년 12월 18일 기준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숙박시설과 이벤트를 등 부대시설 관련 수요 회복은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

# ☀ 게임 > 메타버스·NFT 주도권 경쟁 속 성장 전망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국내 모바일·PC게임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2022년은 메타버스와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비즈니스적 활용이 본격화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게임업계에서도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 2022년 게임산업 전망

국내 게임 시장 규모와 성장률						
구분	시장 규모(억 원)			전년대비 성장률(%)		
	'20년	'21년	'22년	'20년	'21년	'22년
PC 게임	49,012	47,058	46,946	2.0	-4.0	-0.2
모바일 게임	108,311	118,654	132,181	39.9	9.5	11.4
콘솔 게임	10,925	12,815	14,955	57.3	17.3	16.7
아케이드 게임	2,272	2,053	2,161	1.6	-9.6	5.3
PC방	17,970	19,456	21,441	-11.9	8.3	10.2
아케이드 게임장	365	386	592	-48.1	5.6	53.4
합계	188,855	200,422	218,275	21.3	6.1	8.9

- 2022년 국내 게임 시장은 2021년 대비 8.9% 성장한 21조 8,275억 원 전망
  - 게임 유통업(PC방, 아케이드 게임장)을 제외한 게임 플랫폼별 시장 비중으로는 모바일 게임이 67.4%로 가장 높으며, PC(23.9%), 콘솔(7.6%), 아케이드(1.1%)가 뒤를 이을 전망 ('22년 전망 기준)
  - 국내 게임사들은 전통적으로 MMORPG 장르에 강점을 갖지만 확률형 아이템, 고과금 이슈가 맞물리면서 MMORPG 유저의 이탈이 발생하고 장르가 다양화되고 있음
  - 3N(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을 잇는 2K(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및 중견·신생 게임사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음

Source: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대한민국 게임백서',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2022년 게임산업의 주요 트렌드

**01 메타버스 선점을 위한 경쟁 본격화**

- 소셜과 게이밍 기능이 결합된 메타버스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 메타버스의 경우 비게임사도 준비 중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선점 및 메타버스 생태계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
- 콘텐츠가 메타버스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는 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해 온 게임사가 메타버스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

**02 NFT로 부각되는 게임의 새로운 수익원**

- 위조 불가능하며, 소유권 증명이 가능한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는 이용자들이 게임을 즐기며 돈을 벌 수 있는 P2E(Play to Earn) 트렌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 아바타, 아이템 등 디지털 자산을 NFT화하고 유전 간 거래를 활성화해 게임사는 수익을 올릴 수 있으나, 과열된 NFT 시장에 대한 우려, 규제 리스크도 존재

**03 게임업계에 불어오는 ESG 경영**

- 2021년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ESG 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첫 발을 떼기 시작
- 2022년에는 ESG 경영이 국내 게임업계에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하는 국내 게임사들은 ESG의 모든 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에 접어든 것으로 보임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미디어·엔터테인먼트 》 한국 콘텐츠 글로벌 흥행 및 메타버스 부상

전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의 흥행이 이어지면서, 2022년에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에게 우호적인 업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카카오와 네이버를 필두로 한 국내 웹툰 플랫폼은 글로벌 사업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음악업계에서는 자사 글로벌 팬덤 플랫폼에 메타버스와 NFT를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

### 2022년 미디어·엔터테인먼트산업 전망

분야	전망
OTT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료방송 가입자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으로 넘어오는 코드커팅(Cord-cutting) 현상이 일어나는 해외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유료방송과 OTT 시장이 공존하고 있음</li> <li>• 2021년 11월 Apple TV+, Disney+의 국내 진출에 이어, 2022년에는 HBO Max의 한국 진출이 예상됨. 국내 진출한 글로벌 OTT와 국내 토종 OTT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li> <li>• OTT 기업이 보유한 드라마 IP를 활용해 커머스 사업 등 2차 수익 창출 가능성 대두</li> </ul>
콘텐츠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TT 경쟁력으로 양질의 콘텐츠가 중요해지고, '오징어게임', '지옥' 등 한국 콘텐츠의 전 세계적 흥행이 입증되면서 국내 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투자가 증가 추세</li> <li>• 해외 OTT 사업자 외에도 SK텔레콤(웨이브), KT(시즌), CJ ENM(티빙)도 자체적으로 제작 전문 기업을 설립하거나 OTT 콘텐츠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 콘텐츠에 대한 투자 증가는 콘텐츠 퀄리티 개선 → 글로벌 흥행 → 콘텐츠에 대한 재투자 형태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li> <li>• 국내 미디어 기업이 해외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하거나 드라마를 공동 제작하는 방식의 협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li> </ul>
웹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위트홈', 'D.P', '지옥' 등 웹툰 드라마 제작이 늘어나고 흥행하면서, 원작을 찾는 이용자가 증가</li> <li>• 해외 웹툰 사업을 확장 중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입지가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li> </ul>
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치 위치(Binge Watch) 트렌드에 따라 영화 배급사·제작사의 드라마 제작 비중이 증가 중</li> <li>• 코로나19 이후 영화를 영화관이 아닌 OTT 채널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일부 해소</li> </ul>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티스트 중심의 팬덤 플랫폼에 메타버스·NFT가 접목되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li> </ul>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OTT 기업의 콘텐츠 투자 계획	
OTT 기업	투자 계획
넷플릭스	• 2016~2020년 한국 콘텐츠에 7,700억 원을 투자했으며, 2021년에만 5,5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SK텔레콤 (웨이브)	• 2025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별도 제작사를 설립하고 독자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
KT (시즌)	• 2021년 1월 콘텐츠 전문 기업 KT 스튜디오지니 설립 • 2023년까지 오리지널 드라마 100개를 제작할 계획
CJ ENM (티빙)	• 2023년까지 4,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대형 IP 및 웰메이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계획

Source: 각 사, 언론보도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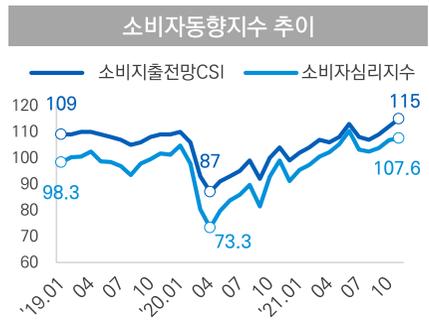
국내 팬덤 플랫폼 특징		
플랫폼	기업	특징
위버스	하이브	• BTS, 블랙핑크 등 강력한 아티스트 보유 • 입점 아티스트 관련 상품을 커머스로 판매
버블	디어유(SM)	• 아티스트와 메시지 소통 기능이 강점 • 소속사별로 별도 앱 제공
유니버스	엔씨소프트	• 독점 오리지널 콘텐츠 서비스가 인기 • 게임미피케이션으로 이용자 참여 유도

Source: 각 사, 언론보도 종합

# 유통 》 소비심리 개선, 온·오프라인 유통에 긍정 영향

2021년 백신 접종률 상승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소 주춤했던 소비심리 개선이 지속. 2022년에는 외부 변수에 따른 소비 시장 내 불확실성은 상존하나, 온·오프라인 업태의 점진적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임. 온·오프라인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업체별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지배력 강화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

## 소비심리 개선



- 백신 접종 진척 및 수출 호조세에 따른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며 소비심리가 개선
  - 소비자심리지수는 '21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연속 100이상을 나타내고 있음
  - 소비자충전망CSI의 경우, 대면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21년 11월, '19년 1월부터 '21년 1월 기간 중 최고치인 115를 기록

Source: 한국은행, 삼정KPMG 경제연구원

## 주요 유통 업태별 현황 및 2022년 전망

'22년에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영향으로 주요 온·오프라인 업태의 점진적 회복 흐름세 예상. 단,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강화·완화에 따른 업태별 회복 흐름 속도에 차이가 나타날 전망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편의점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년에는 보복소비에 따른 해외 유명 브랜드, 스포츠 장비, 가정용품 등의 매출 호조세로 양호한 회복세가 관찰</li> <li>'22년 방문객 증가가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1년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명품·가전 매출 성장률은 기저효과 둔화 가능성</li> </ul> </li> <li>온라인 럭셔리 플랫폼으로의 수요 이전 및 해외여행 재개 시 매출 회복세에 일부 영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년 점포 수 감소 및 재난지원금 사용처 제외에 따른 매출 타격이 존재</li> <li>'22년에는 온라인 사업 및 식품·가전·의류 등 핵심 카테고리에 의한 실적 유지는 가능하나 전반적 성장 여력은 불투명</li> <li>온라인 유료 멤버십 통한 락인효과 제고, 점포 리뉴얼로 경쟁력 확보, 초신선 식품 다양화 등으로 매출 역성장 우려 해소 위한 대응책 모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여행안전권역)에 따른 해외여행 재개 시, 면세점업계 실적 반등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국인 아웃바운드 증가 등 면세점에 긍정 영향</li> <li>중국 인바운드 회복 시, 면세점 실적 추가 상승 예상</li> </ul> </li> <li>변이 바이러스 지속 출현 시 전 세계적 파급 영향 불가피하며,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리두기 규제 완화될 경우, 편의점 영업환경에 긍정 영향 미칠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리두기 규제 강화로 감소했던 야간·심야시간대 편의점 트래픽의 회복세가 가시화되며 편의점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임</li> <li>학교·공방 등 특수입점 점포 및 심야 시간대 고객 트래픽 증가하며 매출 개선 기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프라인 업태 대비 양호한 실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택트(Untact) 소비 선호 경향은 온라인 업태에 긍정 영향</li> </ul> </li> <li>온라인 식품 시장 중심의 성장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 카테고리를 취급하기 위한 물류·배송 인프라 관련 경쟁력이 시장 내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li> </ul> </li> </ul>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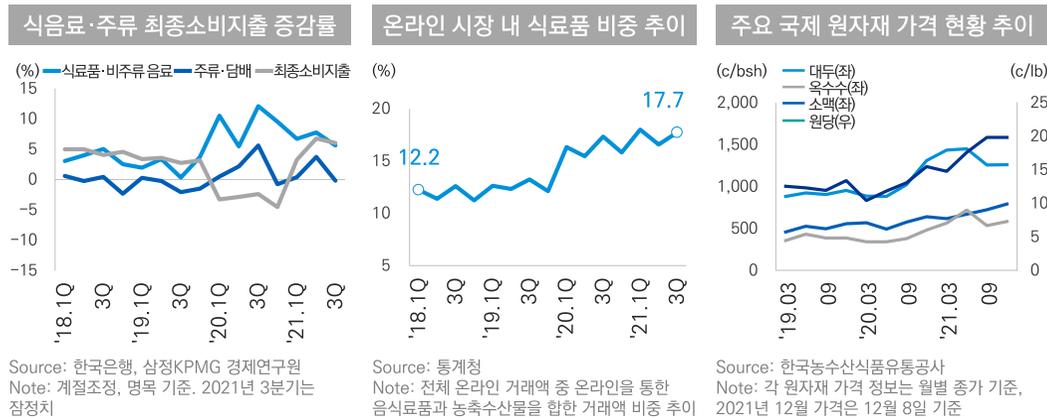
## II. 2022년 산업별 전망



# 식음료》HMR 중심의 실적 유지, 업소용 음료·주류 수요 확대

2022년 국내 식품업계는 HMR(가정간편식)·밀키트 등 가공식품 위주의 안정적 판매 실적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우려가 존재. 음료·주류의 경우, 팬데믹 이후 위축됐던 음료·주류의 업소용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며 시장 성장을 견인할 전망

### 2021년 식음료 시장 현황



- 식료품·비주류 음료의 소비지출은 코로나19 발발 직후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양상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내식 수요가 외식 시장으로 일부 이전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
- 주류·담배 소비지출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강화됐던 '20년 3분기 및 '21년 3분기 중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이 관찰
- 온라인 장보기는 소비자 일상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전체 온라인 거래액에서 식료품 거래 규모 비중은 지속 확대
- 글로벌 공급망 대란 등의 영향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가운데, 특히 원당·대두·소맥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2022년 식음료 시장 전망

1

#### 식품

- 국내 식품 시장은 '22년, HMR(가정간편식)·밀키트 등 가공식품 중심의 견조한 판매 실적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22년에도 국제 주요 곡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식품업계의 원재료 비용 부담 가중 및 수익성 리스크 존재
- 온라인 식품 시장은 이전대비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습관적 온라인 식품 구매 및 일상화로 성장 여력은 여전히 존재
- 한편 글로벌 시장 내 한국 식품 수요 확대에 수출 시장 호조세 예상

2

#### 음료·주류

- 변이 바이러스 등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강화로 인한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상존하나, 단계적 일상회복 재개 시 업소용 음료·주류 시장 중심의 회복세가 가시화될 전망
  - 규제 시행 여부에 따라 회복 속도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임
- 음료 카테고리별, 주종별 성장성에 대한 전망은 상이
  - 업소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 회복세가 관찰될 경우, 탄산음료 및 소주·맥주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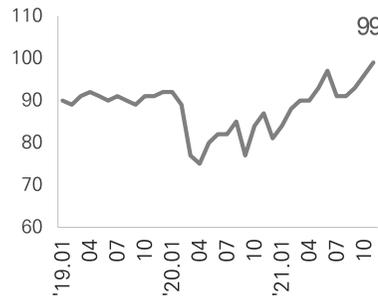


# 외식 > 외식 수요 확대되며 외식경기 점진적 회복세 예상

푸드 딜리버리에 대한 소비자 이용이 확대되며 현장에서의 고객경험 및 서비스 요소가 중요한 오프라인 매장과 배달외식 시장으로 양분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 규제가 외식 수요 회복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불확실성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 2021년 외식산업 현황 및 2022년 전망

외식비 지출전망 C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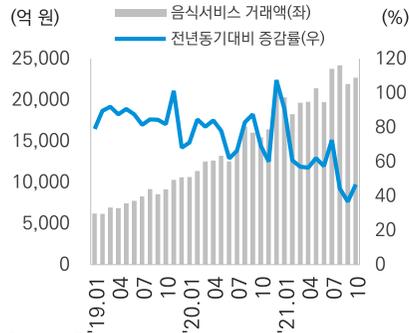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



Source: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Note: 한국외식산업 경기지수는 2011년 이후 3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나, 정밀하고 현실적으로 파악하고자 2020년부터 5점 척도를 주 척도로 활용

온라인을 통한 음식서비스 거래액 추이



Source: 통계청  
 Note: 2021년 10월은 잠정치

- 코로나19 재확산세로 '21년 3분기 중 큰 폭 하락했던 외식비 지출전망CSI는 재반등하며 긍정적 영향 및 기대감이 눈에 띄었음. 반면 '21년 3분기 외식산업 경기지수는 '21년 들어 가장 낮은 65.72로 기록됐으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 역시 100.0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며 여전히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
- '21년 온라인을 통한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감소하며 성장세가 주춤했으나, 전반적인 음식서비스 거래 규모는 지속 확대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1 외식**
  -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 및 단계적 일상 회복에 힘입어 외식 수요가 점차 확대되는 동시에 외식경기의 회복세가 기대됨
    - 다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등 불확실성 우려 상존
- 2 푸드 딜리버리**
  - 팬데믹으로 급부상한 푸드 딜리버리 시장은 소비자의 배달외식 일상화·습관화로 시장 규모는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 발발 직후 대비 성장세는 다소 둔화 전망
- 3 식자재 유통·단체급식업·컨세션**
  - 단체급식업·컨세션은 이용자 수가 늘어 매출 회복 예상. 식자재 유통 또한 시장의 전반적 회복 흐름에 힘입어 실적 개선 전망
  - 국내외 식품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 가중 우려
  - 코로나19 재확산 등 대외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패션 > 외부 활동 회복과 함께 패션 내수 소비 확대

패션 내수 소비 시장의 경우, 코로나19 발발 직후 외출 감소로 타격이 컸던 가운데,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억눌렸던 수요가 서서히 확대되며 회복 흐름을 보일 전망. 한편 패션·의류 소비 및 공급망에 변이 바이러스 등 외부 요인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며, 시장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2021년 패션산업 현황 및 2022년 전망

### 2021년 국내 패션 시장 현황

의류·신발 최종소비지출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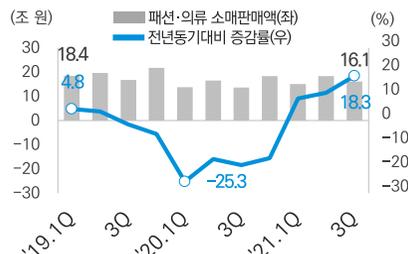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계절조정, 명목 기준, 2021년 3분기는 잠정치

의류·신발 지출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소비심리 위축 및 외출 감소 영향으로 감소세를 이어왔으나 '21년 1분기를 기점으로 증가 추세

- 의류·신발 지출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21년 3분기, 전년동기대비 16.2% 확대된 가운데, 코로나19 발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국내 패션·의류 소매판매액 추이



Source: 통계청  
Note: 패션·의류 소매판매액은 의복, 신발, 가방 소매판매액의 합계, 2021년 3분기는 잠정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패션·의류 소매판매액은 '21년 1분기부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임

- '21년 3분기 패션·의류 소매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18.3% 성장한 16조 1,000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팬데믹 이전 수준의 회복세 조짐이 관찰됨

국내 패션·의류 시장 업황



Source: 통계청  
Note: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의 출하지수 및 재고지수 증감률, 2021년 3분기는 잠정치

'21년 3분기 패션·의류 제조업 출하지수는 전년동기대비 1.9%p 상승한 75.6, 재고지수는 8.9%p 감소한 104.5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패션산업 경기 악화로 '20년 3분기 153.1%에 달했던 재고율은 '21년 3분기 138.2%로 감소

### 2022년 국내 패션 시장 전망

[ 의류비 지출전망CSI ]



Source: 한국은행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이 컸던 패션업계는 기저효과, 소비심리 개선, 보복성 소비 영향에 따라 '21년 점진적 회복세를 이어오고 있음

- 의류비 지출전망CSI는 '21년 7월을 기점으로 반등 '21년 11월, 같은 해 7월 대비 4p 상승한 99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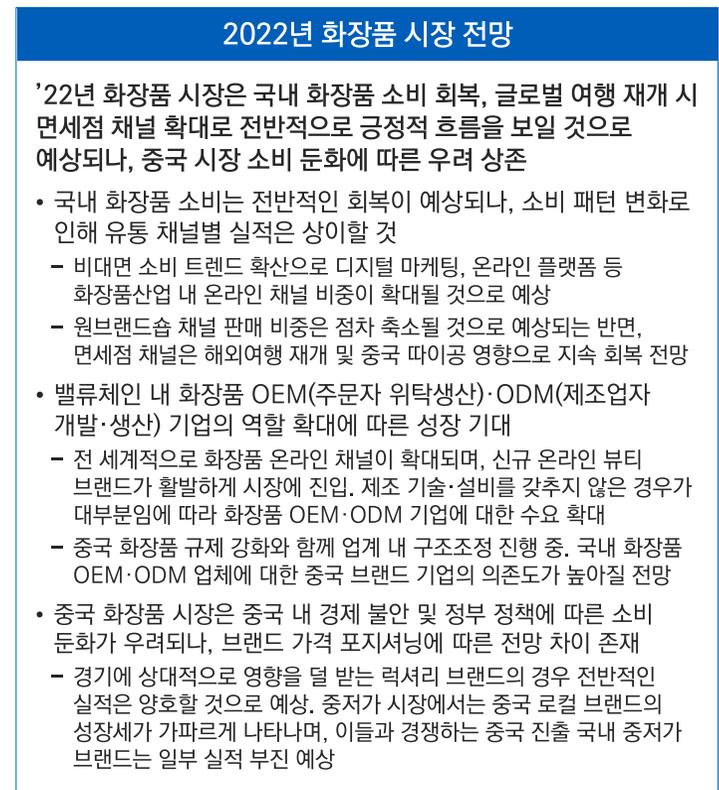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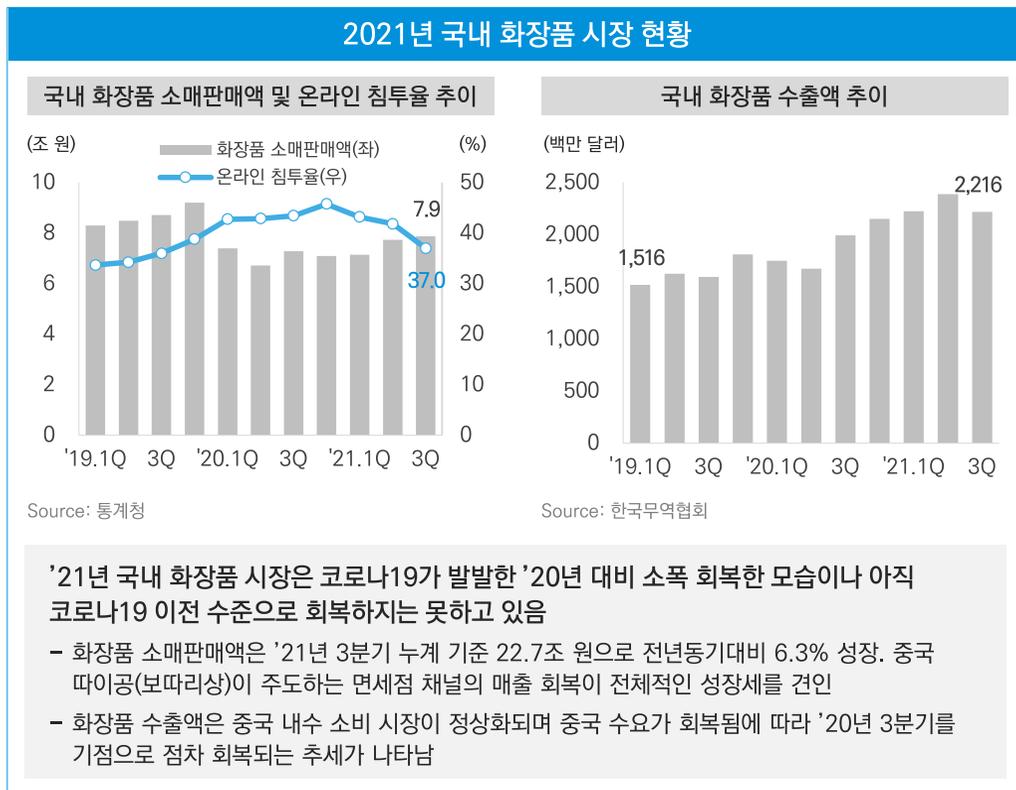
백신 접종 확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외부 활동 확대 등에 따라 패션 내수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기대되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 둔화 우려도 존재

- '22년 럭셔리, 스포츠·아웃도어, 신발 등 특정 복종 중심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 화장품 《 내수 개선 흐름에 따라 점진적인 회복 전망

국내 화장품 시장은 전반적인 소비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나 유통 채널별 성장 속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화장품 수출 주요국으로 꼽히는 중국 시장은 자국 내 경제 불안 및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소비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은행 》 대출 증가율 소폭 둔화 대비 NIM 증가, 부실 가능성 대응 필요

국내 대출 증가세는 소폭 둔화되는 반면,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상 금리 인상 등으로 순이자마진(NIM)은 개선될 전망. 은행 수익은 시장금리 상승과 대출 증가분으로 2021년 수준 유지 또는 제한적으로 소폭 감소할 수 있음.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및 금융불균형에 따른 리스크로 2022년 하반기 이후 대손비용 발생 가능

## 2021년 은행산업 현황과 2022년 전망

<p><b>대출 증가세 소폭 둔화 전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년 상반기 말 국내 은행 원화대출은 1,973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3% 증가</li> <li>기업대출은 '20년 하반기 이후 소폭 둔화세이나, 코로나19 관련 만기연장 등 고려 시 '22년 기업대출 증가율은 5% 상회 전망</li> <li>가계대출은 차주단위 DSR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금리 상승 등으로 '22년 5% 내외 증가율 전망</li> </ul> <p><b>[국내 은행 대출 규모 및 증가율 추이]</b></p>	<p><b>수익성 유지 또는 제한적 감소 전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대비 '21년 당기순이익과 수익성이 모두 증가. 이는 주로 대출자산 증가 및 금리인상 등에 의한 이자수익 증가에 기인</li> <li>기준금리 인상, 기업대출 수요 등에 따른 대출 증가분으로 '22년에도 양호한 이자수익 실적 예상</li> <li>비이자순이익은 금소법 시행 등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우며, 경영상적 수준 기록 전망</li> </ul> <p><b>[국내 은행 당기순이익 및 수익성 추이]</b></p>
<p><b>NIM과 이자순수익 소폭 개선 전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이자마진(NIM)은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정책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20년 4분기 역대 최저치(1.38%) 기록 후 반등</li> <li>대출 자산 지속 증가와 '21년 NIM 상승이 맞물리면서 '21년 들어 국내 은행 이자순수익 증가세</li> <li>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NIM 개선과 대출 자산 증가분 고려 시 이자이익 소폭 증가 전망</li> </ul> <p><b>[국내 은행 순수익의 구조 및 NIM 추이]</b></p>	<p><b>대손비용 증가 및 경쟁도 증가 대비 필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년 1~3분기 중 대손비용은 2.4조 원('20년의 33% 수준)으로 양호한 자산건전성 유지</li> <li>'22년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와 유동성 축소에 따른 금융불균형 관련 리스크 촉발 시 부실 가능성 존재, '22년 하반기 이후 대손비용 발생 가능</li> <li>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 및 신규 사업 가속화로 시장 경쟁도 심화 가능</li> </ul> <p><b>[국내 은행 대손 비용 및 고정이자하여신 비율]</b></p>

Source: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국내 은행의 2021년 상반기 비이자순수익(5.0조 원)은 전년동기대비(3.6조 원) 39% 증가, 이는 산업은행 비경상적 이익 급증에 기인, 이에 2021년 상반기 국내 은행 당기순이익 및 수익성은 산업은행을 제외한 수치임

# 증권 》 주식거래 둔화 및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익 하방 압력

2021년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과 주가 상승 등을 통해 브로커리지와 자기매매 등 전 부문 실적 크게 증가. 2022년 테이퍼링 시행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한편 증시 상승 동력과 주식거래 대금 둔화 전망. 국내 증권사 수익성 하방 압력이 높으며, 시장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

## 2021년 증권산업 현황과 2022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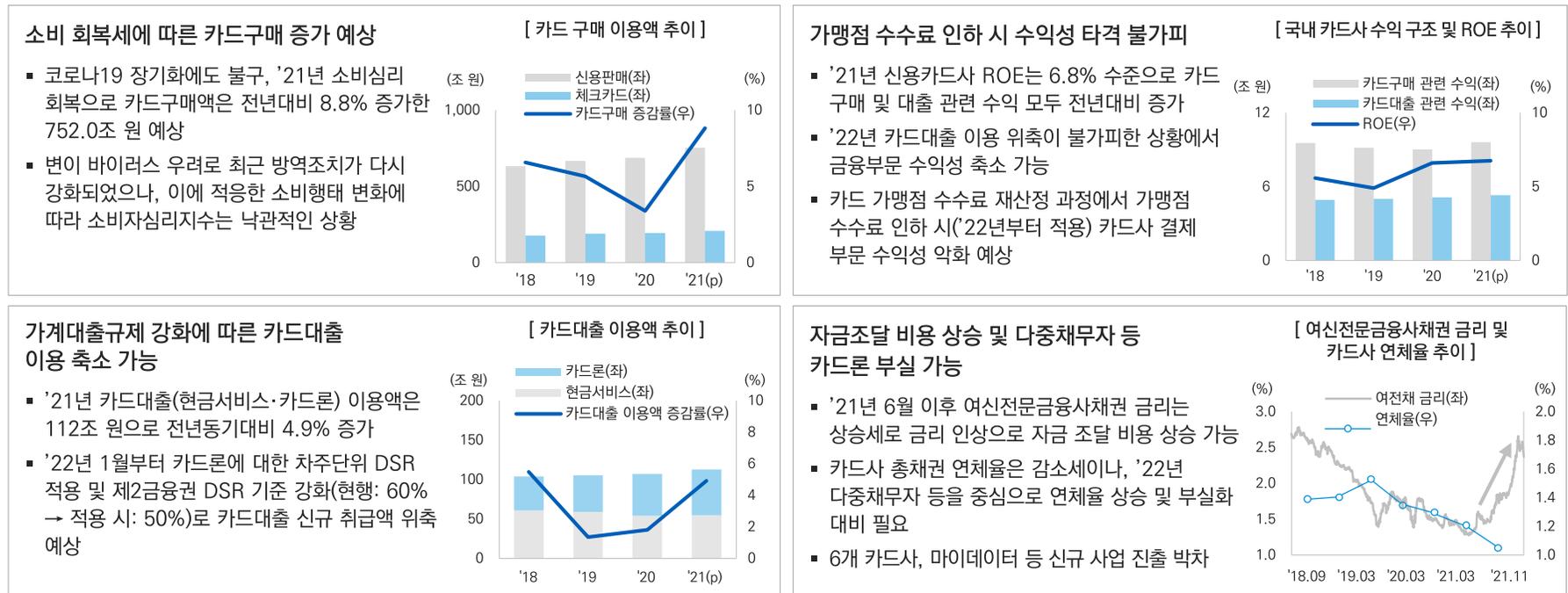
<p><b>주가 상승세 및 주식거래 둔화 가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년 하반기 이후 미국 테이퍼링과 기준 금리 인상 등으로 주식시장 상승세 둔화</li> <li>일평균 거래대금은 '21년 1월 26.5조 원에서 동년 10월 11.8조 원으로 감소</li> <li>증시 상승 동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22년 거래대금 감소와 증시주변자금 유입 둔화 전망</li> </ul>	<p><b>[유가증권시장 지수 및 거래대금 추이]</b></p>	<p><b>수익성 하방 압력 증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년 증권사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예상</li> <li>'22년 거래대금 감소와 레버리지 수요 축소,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등에 따라 브로커리지 수익 둔화, 자기매매 변동성 증대, IPO 시장 위축에 따라 '21년 대비 증권사 수익성 하락 전망</li> <li>자산관리 중심의 리테일 사업 및 IB 특화 업무의 경쟁력 부각 가능</li> </ul>	<p><b>[국내 증권사 당기순이익 및 수익성 추이]</b></p>
<p><b>브로커리지 실적 감소 및 자기매매 수익 변동성 증가 전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년 주가 상승 및 거래대금 증가로 브로커리지가 최대 수익원으로 부상하며 증권사 전 사업 부문 실적 개선</li> <li>'22년 주식거래 둔화 등으로 브로커리지 실적 감소 및 시장변동성에 따른 자기매매 수익 변동성 증가 전망</li> </ul>	<p><b>[증권사 수익구조 추이]</b></p>	<p><b>리스크·건전성 관리와 사업다각화 필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이후 종투자 중심으로 요주의이하 자산 규모 증가, 호텔·항공기 등 해외대체투자 실적 약화에 기인</li> <li>RP매도·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 등으로 종투자 레버리지 비율은 높은 수준 ('21.3Q 725%)</li> <li>금리 상승에 따라 채권운용 등 시장/운용리스크 확대 대비 및 건전성 관리, 자산관리 및 특화 IB 업무 등 체질 개선 기반 마련 필요</li> </ul>	<p><b>[증권사 규모별 요주의이하 자산 추이 및 순요주의이하 자산 비중]</b></p>

Source: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초대형의 경우, 2021년 6월 말 기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8개 사이며 대형사의 경우 자기자본 1~4조 원인 8개 사, 중소형은 자기자본 1조 원 미만인 국내 증권사 31개 사 기준

# 카드 》 규제 변화 및 자금조달 비용 상승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

가계대출규제 강화로 카드사 금융부문 실적 위축 및 가맹점 수수료 인하 시 결제부문 수익성 악화 우려.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가능성으로 카드사 수익성 악화 압력이 높으며, 경기 불확실성과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종료 등에 따른 다중채무자 중심 연체율 상승과 부실 가능성 대응 필요

## 2021년 신용카드산업 현황과 2022년 전망



Source: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여신금융협회,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신용카드사는 전업 카드사 8개 대상 기준, 카드사 2021년 구매 이용액, 대출, 수익 및 ROE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 추정 산출



# 생명보험 《 금리 인상에 따른 이차역마진 개선과 건전성 관리 필요

2022년 보장성 보험 중심으로 보험 수요가 유지되고, 금리 인상에 따라 이차역마진 축소 전망. 그러나 주가 하방 압력, 사업비 증가 가능성으로 수익성 유지 또는 제한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며,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에 대비한 자본관리 방안이 요구됨

## 2021년 생명보험업 현황과 2022년 전망

<p><b>보장성 보험 중심 영업 확대 전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년 저축성 보험 축소되었으나, 질병·건강 관련 보장성 보험과 주가 상승에 따른 변액보험 판매 증가, 생명보험사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0.3% 증가</li> <li>'22년 저축성 보험 축소 불가피, 주가 상승세 둔화로 변액보험 판매 둔화 가능. 반면 보장성 보험은 성장세 유지 전망</li> </ul>	<p><b>[ 국내 생명보험사 상품별 수입보험료 추이 ]</b></p> <table border="1"> <caption>국내 생명보험사 상품별 수입보험료 추이 (조 원)</caption> <thead> <tr> <th>상품</th> <th>'19</th> <th>'20</th> <th>'21(p)</th> </tr> </thead> <tbody> <tr> <td>보장성</td> <td>~45</td> <td>~45</td> <td>~45</td> </tr> <tr> <td>저축성</td> <td>~30</td> <td>~35</td> <td>~32</td> </tr> <tr> <td>변액</td> <td>~18</td> <td>~18</td> <td>~18</td> </tr> <tr> <td>퇴직연금</td> <td>~25</td> <td>~22</td> <td>~22</td> </tr> </tbody> </table>	상품	'19	'20	'21(p)	보장성	~45	~45	~45	저축성	~30	~35	~32	변액	~18	~18	~18	퇴직연금	~25	~22	~22	<p><b>수익성 유지 또는 제한적 감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년 투자영업이익은 전년 수준 유지, 금리와 주가 상승 등으로 보증준비금 적립 부담 완화와 사업비 감소로 보험영업손실 축소</li> <li>'22년 신규 채권 투자 등을 통해 투자운용수익률 제고 및 이차역마진 개선 전망</li> <li>경제 정상화 시 사업비 증가 및 주가 하방 압력에 따른 보증준비금 등 변동성 확대 가능성 상존</li> </ul>	<p><b>[ 국내 생명보험사 수익성 추이 ]</b></p> <table border="1"> <caption>국내 생명보험사 수익성 추이 (조 원)</caption> <thead> <tr> <th>연도</th> <th>보험영업(좌)</th> <th>투자영업(좌)</th> <th>ROE(우)</th> </tr> </thead> <tbody> <tr> <td>'18</td> <td>~10</td> <td>~20</td> <td>5.5%</td> </tr> <tr> <td>'19</td> <td>~10</td> <td>~20</td> <td>3.9%</td> </tr> <tr> <td>'20</td> <td>~10</td> <td>~20</td> <td>3.8%</td> </tr> <tr> <td>'21(p)</td> <td>~10</td> <td>~20</td> <td>4.4%</td> </tr> </tbody> </table>	연도	보험영업(좌)	투자영업(좌)	ROE(우)	'18	~10	~20	5.5%	'19	~10	~20	3.9%	'20	~10	~20	3.8%	'21(p)	~10	~20	4.4%
상품	'19	'20	'21(p)																																								
보장성	~45	~45	~45																																								
저축성	~30	~35	~32																																								
변액	~18	~18	~18																																								
퇴직연금	~25	~22	~22																																								
연도	보험영업(좌)	투자영업(좌)	ROE(우)																																								
'18	~10	~20	5.5%																																								
'19	~10	~20	3.9%																																								
'20	~10	~20	3.8%																																								
'21(p)	~10	~20	4.4%																																								
<p><b>금리 인상으로 이차역마진 축소 가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생명보험사 운용자산이익률은 낮아지는 추세</li> <li>반면 '19년 6월 기준 생명보험사 적립금 중 확정금리형 상품은 41.5%(244.4조 원), 이 중 금리 5%이상 상품이 61.3% (금융감독원/김성원의원실)</li> <li>'22년 금리 인상 시 운용자산이익률 상승 등으로 이차역마진 축소 가능</li> </ul>	<p><b>[ 국내 생명보험사 이차역마진 ]</b></p> <table border="1"> <caption>국내 생명보험사 이차역마진 (%)</caption> <thead> <tr> <th>연도</th> <th>평균 운용자산이익률</th> <th>보험료 적립금 부담이율</th> </tr> </thead> <tbody> <tr> <td>'16</td> <td>~3.8</td> <td>~4.5</td> </tr> <tr> <td>'17</td> <td>~3.5</td> <td>~4.4</td> </tr> <tr> <td>'18</td> <td>~3.6</td> <td>~4.3</td> </tr> <tr> <td>'19</td> <td>~3.4</td> <td>~4.2</td> </tr> <tr> <td>'20</td> <td>~3.1</td> <td>~4.1</td> </tr> </tbody> </table>	연도	평균 운용자산이익률	보험료 적립금 부담이율	'16	~3.8	~4.5	'17	~3.5	~4.4	'18	~3.6	~4.3	'19	~3.4	~4.2	'20	~3.1	~4.1	<p><b>건전성 관리 및 IFRS17 대비 방안 모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생명보험사 RBC 비율 소폭 하락 ('20.4Q 297.3% → '21.2Q 272.9%)</li> <li>생명보험사의 매도가능채권 비중은 35% 수준으로 금리 상승 시 채권평가손실 발생으로 건전성 악화 가능</li> <li>금리/주가 변동성 확대, IFRS17 시행 등에 대비한 리스크, 사업 및 자본관리 강화 필요</li> <li>헬스케어 사업 등 중장기 사업 전략 모색 병행 필요</li> </ul>	<p><b>[ 국내 생명보험사 매도가능채권 현황 ]</b></p> <table border="1"> <caption>국내 생명보험사 매도가능채권 현황 (조 원)</caption> <thead> <tr> <th>연도</th> <th>매도가능채권 규모(좌)</th> <th>운용자산대비 비중(우)</th> </tr> </thead> <tbody> <tr> <td>'17</td> <td>~220</td> <td>~34%</td> </tr> <tr> <td>'18</td> <td>~210</td> <td>~31%</td> </tr> <tr> <td>'19</td> <td>~230</td> <td>~33%</td> </tr> <tr> <td>'20</td> <td>~270</td> <td>~36%</td> </tr> <tr> <td>'21.H</td> <td>~260</td> <td>~35%</td> </tr> </tbody> </table>	연도	매도가능채권 규모(좌)	운용자산대비 비중(우)	'17	~220	~34%	'18	~210	~31%	'19	~230	~33%	'20	~270	~36%	'21.H	~260	~35%				
연도	평균 운용자산이익률	보험료 적립금 부담이율																																									
'16	~3.8	~4.5																																									
'17	~3.5	~4.4																																									
'18	~3.6	~4.3																																									
'19	~3.4	~4.2																																									
'20	~3.1	~4.1																																									
연도	매도가능채권 규모(좌)	운용자산대비 비중(우)																																									
'17	~220	~34%																																									
'18	~210	~31%																																									
'19	~230	~33%																																									
'20	~270	~36%																																									
'21.H	~260	~35%																																									

Source: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삼정KPMG 경제연구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생명보험협회, 예금보험공사,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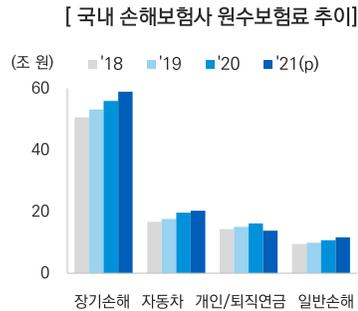
# 손해보험 《 손해율 상승 및 시장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 대비

2021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등 손해율이 개선되었으나, 2022년 경제활동 재개 시 손해율 상승으로 감익 가능성 높음. 디지털 손해보험사 및 소액단기보험 시장 등 손해보험 시장 내 경쟁 심화 가능성, 금리와 주가 등 시장 변동성 헤지 역량, IFRS17 사전 대응 방안 마련

## 2021년 국내 손해보험업 현황과 2022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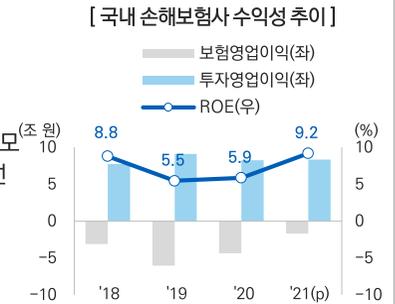
### 원수보험료 성장률 유지 전망

- '21년 손해보험산업의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장기·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년대비 2.2% 증가
-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소멸 등으로 자동차보험 성장세는 둔화될 수 있으나, 장기·일반손해보험 등은 신규 위험담보 확대 등으로 성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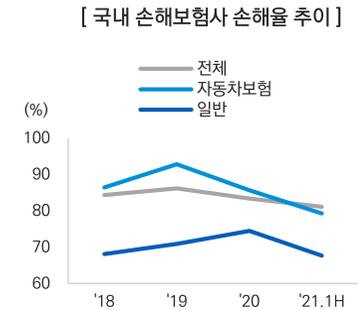
### 수익성 둔화 전망

- '21년 손해율 하락 등으로 보험영업손실이 크게 축소, 비경상적 이익에 따른 투자영업이익 개선
- '22년 손해율 상승 가능성으로 보험영업손실 규모 확대 전망, 정비수가 인상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 등으로 일부 상쇄 가능
- 금리 인상과 주가 하락 등에 따라 투자영업이익 변동성 확대되어 수익성 둔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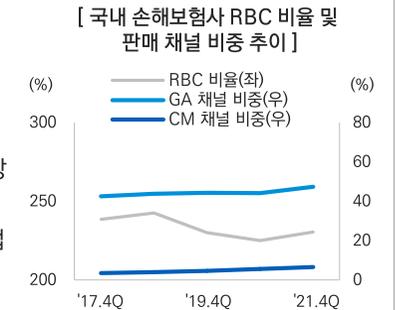
### 손해율 상승 가능성 유의

- '20년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으로 이동량이 제한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 및 전년대비 고액사고 감소로 일반손해보험 손해율 감소\*
- 경제 활동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동량 증가 시 손해율 반등 가능



### 손해보험사 경쟁 심화 가능성 및 IFRS17 시행 대비 필요

- 디지털 손해보험사(카카오손해보험) 본인가,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 연계 촉진,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추진 등 시장 환경 변화로 경쟁 확대 전망
- GA 판매 채널 비중('21.2Q 기준 47%) 고려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GA 영업 위축 가능성 및 시장 변동성, IFRS17 시행 대비 자본확충 방안 필요



Source: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삼정KPMG 경제연구원 금융감독원 통계정보시스템, 손해보험협회, 예금보험공사,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020년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등에 따라 일반 손해보험 손해율은 74.5%까지 상승한 후 하락

# Chapter. III

시사점 및 기업 대응 전략



# 2022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2022년에는 대내외적 변수에 따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 국내 기업은 코로나19와 디지털화, ESG 부상 등으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플랜 수립을 통한 성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함

## 2022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 『긍정』 전망 산업

	2022년 전망	대응 전략
 <b>반도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미세공정 기술력 고도화 및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속적 R&amp;D 및 투자로 국내 기업 입지 강화 전망</li> <li>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비즈니스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지속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세계적 반도체 수급 불안정 이슈가 확산되며 반도체 자급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기업 간 전략 공조 필수</li> <li>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 향상 및 반도체 전후방 공급망 고도화</li> </ul>
 <b>에너지·유틸리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국내 에너지 수요는 증가할 전망</li> <li>특히,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수요 증가세 뚜렷하게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유가 및 에너지 가격 리스크 헤지(Hedge) 전략 수립</li> <li>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 대비</li> </ul>
 <b>게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셜과 게이밍 기능이 결합된 메타버스 서비스가 확산될 전망</li> <li>NFT는 이용자들이 게임을 즐기며 돈을 벌 수 있는 P2E (Play to Earn) 트렌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타버스와 NFT를 선점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되, 게임이 주는 본질적인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li> <li>국내에서 NFT 활용 게임이 규제상 불가한 바, 규제적 측면 고려</li> </ul>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2022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계속

## 2022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 ☀ 『긍정』 전망 산업



미디어·엔터테인먼트

#### 2022년 전망

-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흥행과 OTT 기업 간 콘텐츠 경쟁이 지속되면서, 미디어·엔터테인먼트업계의 우호적 업황 예상
- 국내 웹툰 기업의 글로벌 사업 확장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
- 음악업계의 팬덤 플랫폼에 커머스를 접목해 수익 사업 확장 전망

#### 대응 전략

- ✓ 해외 OTT 플랫폼 기업의 국내 영향력이 증대되는 시점에, 국내 OTT 기업은 차별화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투자와 M&A, 전략적 제휴, 공동 제작 등 다양한 수단 고려
- ✓ OTT, 웹툰 등의 플랫폼을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2022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계속

## 2022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 『일부 긍정』 전망 산업

	2022년 전망	대응 전략
 휴대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폰이 차지하는 비중 증가 예상</li> <li>반도체 공급 이슈로 생산이 어려웠던 중저가 스마트폰의 판매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흥국 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과 폴더블폰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라인 투트랙으로 시장 공략</li> <li>스마트폰용 반도체 확보로 공급 병목 현상 방지 전략 수립</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일부 완화 전망, 반도체 수요의 구조적 증가</li> <li>주요 OEM이 다수 모델의 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테슬라 및 신생 EV 기업들도 신차 출시를 준비 중. 전기차 시장 경쟁 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검토</li> <li>국가별·시장별 맞춤형 전기차 침투 전략 수립. 전기차 전용 A/S 시스템 구축. 증가하는 폐배터리 활용 방안 모색</li> </ul>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진국 중심 철강 수요 회복을 토대로 글로벌 철강 수요는 증가 전망</li> <li>중국의 철강 감산 정책으로 인해 역 내 경쟁 구도는 단기적 완화 예상</li> <li>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중국의 성장 둔화는 수요 회복에 제약 요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지연, 중국 내 부동산 및 건설 투자 수요 감소, 미국의 테이퍼링 등 경기 하향 리스크 관련 대응 전략 도출</li> <li>중장기적으로 중국 철강사 양적 확대, 경쟁력 강화 리스크도 대비</li> </ul>
 정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송 부문 경기의 빠른 회복으로 운송용 정유제품 판매 증가</li> <li>화학제품 수요 증가세는 여전한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구조 변화 등으로 제품별 수익성은 상이할 전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별 제품 수요변화에 대한 기민한 대응전략 수립</li> <li>NCC 수익성 악화에 대비하여 기업별 파이프라인의 다각화</li> <li>원가절감, 유통 효율화 등을 통한 수익성 확보 노력 필요</li> </ul>
 제약·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및 R&amp;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진행 전망</li> <li>후기 임상 파이프라인 증가로 기술료 수입 유입 증가 예상</li> <li>CMO 시장은 단일 항체 및 유전자-세포치료제 중심으로 지속 성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신약 개발 시 R&amp;D 리스크 절감 위해 글로벌 주요 빅파마와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필요</li> <li>글로벌 시장 내 기술력 보유 기업 발굴, M&amp;A 적극적 수행 필요</li> </ul>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2022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계속

## 2022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 『일부 긍정』 전망 산업

	2022년 전망	대응 전략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목 수주의 증가와 주거용 건설 수주의 증가로 국내 건설 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li> <li>• SOC 예산 확대와 주택 분양 물량 증가가 건설산업의 성장을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부문의 호조세에 의존 보다는 지속적인 해외 시장 개척과 ESG 영역으로의 확장 등의 고민이 필요</li> <li>✓ 토목·플랜트 분야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장기적 플랜 수립</li> </ul>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여객은 국내선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하고 있는 추세이나, 최근 다시 시행되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여전히 불확실성 존재</li> <li>• 항공화물 수요는 고유가 및 해상 운임 정상화로 이익 감소 우려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여객 국제선 노선의 운항 재개에 대비한 대응 전략 수립</li> <li>✓ 항공화물의 수요 감소 리스크에 대비하여 유휴 자산 및 저수익 자산 매각으로 재무 건전성 선제적 확보</li> </ul>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제한조치 완화, 트래블 버블 등에 힘입어 점진적 회복세 예상</li> <li>•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돌발변수가 지속되며 예상보다는 회복이 늦어질 우려가 존재하나 2021년 대비 활성화 기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라이빗·소규모 여행 상품 개발, 국내외 안전 여행지 신규 개발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맞는 대응 방안 필요</li> <li>✓ 숙박시설은 객실 및 부대시설의 운영 인력과 전략 재정비</li> </ul>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변수에 따른 소비 시장 내 불확실성은 상존하나 소비심리 개선으로 온·오프라인 유통의 점진적 회복세 전망</li> <li>• 온·오프라인 업태를 불문, 경쟁력 확보 여부에 따라 회복 흐름 속도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 락인(Lock-in) 전략 수립으로 지배력 확보 경쟁에 대응</li> <li>✓ 온라인상의 경험과 오프라인 장점을 결합해 차별화된 고객경험 제공 위한 'OMO(Online Merge with Offline)' 전략 수립</li> </ul>
 식음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팬데믹 이후 위축되었던 업소용 음료·주류 수요의 뚜렷한 회복세</li> <li>• 글로벌 시장 내 한국 식품 수요 확대로 가공식품 수출 성장세 전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o-to-Market 전략 정교화로 글로벌 신시장 선점</li> <li>✓ 세분화된 소비자 니즈 대응 및 부족한 역량 조기 확보 위해 파트너십 혹은 M&amp;A 고려</li> </ul>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2022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계속

## 2022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 『일부 긍정』 전망 산업

	2022년 전망	대응 전략
 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적 일상회복 시, 외식 소비가 확대되며 영업환경 개선 전망. 단, 변이 바이러스 등 외식 경기 불확실성 우려</li> <li>• 푸드 딜리버리에 대한 경험 확대로 외식 수요 및 배달외식 수요로 양분화 예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콘셉트의 오프라인 매장 구축 및 푸드테크 도입 등으로 고객경험 제고</li> <li>✓ 외식-식품 제조-유통 등 다자간 파트너십을 통한 'RMR(레스토랑 간편식)' 신사업 진출 및 외식 불확실성 해소</li> </ul>
 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출경기 개선 및 수요 확대 전망</li> <li>• 럭셔리, 스포츠·아웃도어, 신발 등 주요 복종의 매출 회복세 예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패션 플랫폼 등 다양한 유통 채널로 국내외 소비자 유인</li> <li>✓ 복종별 패션 시장 내 성장 여력 확보가 제한적인 가운데, 비즈니스 기회 모색 위해 브랜드 라인업 확장 고려 필요</li> </ul>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품 시장은 내수 개선 흐름이 예상되며, 글로벌 여행 재개 시 면세점 판매 채널 비중 확대 예상</li> <li>• 글로벌 시장 내 K-뷰티 수요 확대되며 수출 실적 긍정 전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를 통한 신시장 개척 통해 중국 편향적 수출 구조에서 탈피</li> <li>✓ 인디 뷰티 브랜드 등 경쟁력 보유한 신규 중소 브랜드와의 파트너십 체결 및 M&amp;A</li> </ul>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대출 증가분과 NIM 개선 등으로 양호한 이자수익 전망</li> <li>•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및 금융불균형에 따른 리스크로 대손비용 증가 가능, 인터넷전문은행 등으로 경쟁 심화 전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리 상승,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취약차주 및 기업대출 부실 등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li> <li>✓ 오프라인/디지털 역량 강화, 협업·제휴를 통한 사업 경쟁력 확보</li> </ul>
 생명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리 인상으로 이차역마진 축소 가능, 건강 등 보장성 보험 수요 확대</li> <li>• 보험/투자영업수익 변동성 확대 및 채권평가이익 축소 등에 따른 건전성 하락 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리·주가 변동성에 대한 헤지 역량 강화, 금리 변동에 따른 RBC 영향 검토 및 자본관리 방안 모색</li> <li>✓ 요양서비스/헬스케어 분야 등 신사업 확장 전략 수립</li> </ul>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2022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계속

## 2022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 『일부 부정』 전망 산업

	2022년 전망	대응 전략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에는 코로나 공존 시대로의 전환과 함께 디스플레이 업계는 다운사이클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li> <li>• OLED 시장은 양호한 성장을 이어가겠지만, OLED의 성장에 LCD 시장의 낙폭을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이 LCD를 넘어 OLED 분야로도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바, 국내 기업은 OLED를 잇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이 필요</li> <li>✓ 전후방 산업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통해 리스크 관리</li> </ul>
 조선·해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산업은 글로벌 발주량 감소로 전반적인 소강상태가 예상</li> <li>• 해운산업은 중국 조강 생산량 제한, 오미크론 확산 등의 요인으로 전반적인 화물 물동량 감소가 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MO 환경 규제 등 글로벌 친환경 정책 기조 모니터링 및 기술개발 필요</li> <li>✓ 향후 물류 혼란의 수습과 선복공급 부족 해소에 대비해 고정비용 감소 및 영업노선 다변화 등 체질 개선 필요</li> </ul>
 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이퍼링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주가 상승 동력 제약 및 거래대금 증가세 둔화 전망, 브로커리지 수익 축소 등 수익성 약화 가능</li> <li>• 금소법에 따른 고난도 상품 판매 제약, 코로나19 이후 MZ 세대 중심으로 자산관리 수요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RP 등 연금/자산관리시장, M&amp;A 등 IB 특화 업무 역량 강화</li> <li>✓ 시장 변동성 헤지 운용 역량, 유동성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 마련</li> </ul>
 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카드대출 이용 위축,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가능성과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우려</li> <li>• 전업·겸업 카드사 마이데이터 등 신규사업 본격 경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채무자 연체율 상승과 부실 가능성 사전 대응 방안과 자금조달 구조 다원화</li> <li>✓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 신사업 경쟁력 모색 및 차별화</li> </ul>
 손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보험 시장 성장 둔화와 장기/일반손해보험 성장 개선 전망</li> <li>• 손해율 상승 우려 및 투자영업이익 변동성 증가 전망</li> <li>• 손해보험시장 내 경쟁 심화 가능성 및 자본관리 필요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보험/실손보험 제도 변화에 따른 보험료 변동 및 손해율 관리 방안 마련</li> <li>✓ 신규 위험 인수 및 디지털 역량 마련, IFRS17 대응 전략 강화</li> </ul>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See other Business Reports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국내외 산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하며, 기업이 직면하는 경영 이슈를 점검하는 기획 발간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2021년 11월 발간 코로나와의 공존과 기업의 생존 : 적응과 진화의 시대, 기업의 선택은?



### Contents

- I. 회복과 침체의 갈림길에 선 경제 현주소
- II. 위드코로나 시대, 무엇이 달라지나?
  - Market: 바뀐 것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
  - Regulation: 새로운 정책, 디지털과 그린
  - Competition: 빅블러와 하이퍼 코퍼티션
  - Customer: 사람들은 오프라인에 돌아올까
- III. Key Takeaways



QR코드  
[다운로드]



보고서 PDF  
[다운로드]

## 2021년 10월 발간 2021 글로벌 CEO 설문조사 리포트 KPMG 2021 CEO Outlook



### Contents

- KPMG는 전 세계 CEO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CEO의 인사이트와 경영 우선순위 변화를 보고서에 담고 있습니다.
- KPMG, 글로벌 CEO 1,325명 대상 경영환경 및 경제 성장 전망 조사
  - CEO 58% “ESG 리포팅 및 투명성 증대 관련 이해관계자 요구 증가”
  - CEO 87% “비즈니스 성장 및 혁신 위해 향후 3년 내 M&A 고려”



QR코드  
[다운로드]



보고서 PDF  
[다운로드]

# Business Contacts

## Industry Leader

### 금융산업

조원덕

부대표

T: 02-2112-0215

E: wcho@kr.kpmg.com

### 유통·소비재산업

신장훈

부대표

T: 02-2112-0808

E: jshin@kr.kpmg.com

### 자동차산업

위승훈

부대표

T: 02-2112-0620

E: swi@kr.kpmg.com

### 제조·건설산업

변영훈

부대표

T: 02-2112-0506

E: ybyun@kr.kpmg.com

### 전자·정보통신·반도체산업

염승훈

부대표

T: 02-2112-0533

E: syeom@kr.kpmg.com

## [home.kpmg/kr](http://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Samjong KPMG ERI Inc.,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